

업황부진에 움츠러드는 철강업계 고강도강재 등 미래사업 집중 투자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 영향
전기료 인상으로 원가부담 심화
구조조정 등 효율성 개선 속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철강업계가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가 따른다. 업계는 뚜렷한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아 내년까지도 실적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철강 가격이 하락한 점이 지목된다.

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이 꼽힌다. 철강수요의 60% 가량을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데 건설경기 자체가 부진하면서 철강 수요도 줄고 그에 따라 가격까지 떨어져서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도 겹쳐 실적 부진은 더욱 심화됐다. 특히 철강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모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철강 제품 원가에서 산업용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1kWh(킬

로와트시)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고부가 제품 수요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지만 업계는 업황 부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철강사들은 결국 일제히 움츠러는 전략을 택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업황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구조개편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으며 이중 2024년 3분기까지 총 2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6254억원에 달하는 현금유입효과를 거두는 등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전, 방산 등 성장산업 신규 수요 확보에 집중하고 고강도 강재 개발을 통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동국제강은 장기화된 지방산업 침체 속 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4분기에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공장 운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도 업황이 반등할 뚜렷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철강사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최태원 회장 “T1, 큰 감동과 자부심 선사” (SK)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축전



입하며 e스포츠 저변을 확대했다. 실제 제우스 최우재, 오너 문현준,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는 모두 유망주 그룹인 'T1 루키즈' 출신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e스포츠 구단 T1에 “여러분이 보여준 패기와 팀워크가 저를 포함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다”고 축전을 보냈다.

최태원 회장이 3일 T1 선수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을 축하했다. T1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O2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 빌리빌리 게이밍을 3대2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T1은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믿고 헌신하며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가치가 더 크다”며 “이번 우승이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큰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는 그동안 다방면으로 T1과 한국 e스포츠 성장에 기여했다. SK텔레콤은 T1에 국내 최초 유망주 시스템을 도

구단 운영 외에도 2005년부터 8년간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사를 맡고 각종 대회를 주최했다.

SK스퀘어는 T1의 밸류업을 위해 2022년 컴캐스트와 함께 1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페이커 선수와 재계약도 성사시켰다. T1의 롤드컵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e스포츠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페이커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T1의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T1이 글로벌 e스포츠 리더 플레이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기아, 국내 신용평가 최고등급 달성

신평사 3곳 ‘AAA’... 전망 ‘안정적’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주요 신용평가회사 3곳에서 모두 최고신용 등급을 받았다.

3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AA A’로 상향했다. 한국기업평가에서 현대차의 신용등급 상승은 지난 2019년 11월(AA+) 이후 5년 만이다. AAA 등급은 한국기업평가의 20개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파워트레인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우호적 환율 효과 등에 힘 입

어 시장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아는 지난 9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최고 신용 등급 AAA를 받은 후 지난 1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까지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글로벌 지위 상승과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익성·재무건전성 개선 등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기아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해 가능한 기술력과 생산역량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 변화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한온시스템 인수 메시지

“안정적 융합으로 프로액티브 가치 실현”

조 회장, 한온시스템 사업 방식 존중
“양사, 최고의 자리에서 시너지 창출”



“안정적 융합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프로액티브 가치를 실현하자.”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사진)이 한온시스템 인수를 통해 양사가 최고의 자리에서 시너지를 창출하자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한온시스템의 사업 방식을 존중한다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3일 한국엔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1일 한온시스템 전체 임직원에게 결함을 알리는 국영문 메시지를 전했다.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완전한 융합

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회장은 “회사는 지주사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한온시스템과 시너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최고의 자리에서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쉽지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그룹 임직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프로액티브한 혁신과 미래 가치의 창출’이며 이는 모든 구성원이 협력할 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모빌리티 테크 리더 ▲지속 가능 성장 ▲혁신

의 현실 ▲두 조직의 온전한 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프로액티브 컬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장기 성장, 중단기 수익 회복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미션이 있다”며 “한국엔컴퍼니그룹 고유 문화인 ‘프로액티브 컬처’로 함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프로액티브 컬처는 우리 구성원이 능동적·혁신적으로 일의 주체가 되는 게 핵심”이라며 “지주사 한국엔컴퍼니를 포함 그룹 전체가 한온시스템 전략·인사·재무·법무·PR 등 모든 부문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 1위

갤럭시 S 시리즈 판매 호조

삼성전자가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2.8%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올해 3분기에도 매출 점유율 1위를 차지

했다. 22.8%는 지난해 22.6% 대비 0.2% 상승한 수치다.

애플은 21.6%로 2위를 기록했다. 중국 브랜드 비보, 오포, 샤오미는 각각 15.5%, 10.8%, 8.7%로 3위부터 5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3% 가량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갤럭시 S 시리즈 판

매 호조로 매출 점유율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저가 세그먼트에서 더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는 효과를 위해 갤럭시 A 시리즈에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3분기 인도 스마트폰의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코프로 “기아타이거즈 우승 비결 배워야”

‘경영메시지 5가지’ 임직원 공유

에코프로가 사내 홍보 채널을 통해 천만관중을 돌파한 2024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기아의 비결을 임직원들과 공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에코프로는 사내 홍보 채널 ‘에코톡톡’을 통해 ‘프로야구에서 배우는 경영메시지 5가지’를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에코톡톡은 기아의 우승 요인으로 첫번째 ‘신규의 조화’를 꼽았다. 선수단 내 노장 선수의 경험과 신예 선수들의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낸 것이 우승 비결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두번째 요인은 ‘포수의 희생 정신’이다. 에코톡톡은 “기업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분야별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묵묵히 조직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직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대우해줘야

한다”며 “현장의 운영직 직원들은 야구 경기로 비유하면 포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요인은 ‘데이터 활용 능력’이다. 기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자들 체력이 6월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승률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고 체력 훈련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번째 요인은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도태될 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은 위기 뒤 찾아오는 기회를 통해 독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코톡톡은 리더의 소통 능력에 주목했다. 이범호 감독처럼 권위주의를 벗어 던지고 솔선수범해 현장의 고충과 분위기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리더가 기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차현정 기자